

목어

열반의 첫째 조건

"21세기 인류의 삶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인자는 문명이다. 미래 인류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문명간 대화가 필수적이며, 문명의 핵심은 종교다." 새뮤얼 헌팅턴의 저서 <문명의 충돌>의 핵심 내용이다. 그의 '문명충돌론'은 전세계 학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대 지구촌에서 종교가 세계 질서 형성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종교에 관한 한, '세계종교백화점'으로 간주되고 있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종교간 대화의 길은 아직도 먼 것 같다. 서로에 대한 바른 인식의 결핍 때문이다.

"우리나라 종교계는 자기네 사람이라는 확신이 서야 사람을 볼지, 종교계 대화교·기독교계 대화이든, 불교계 대화이든 예외는 아니지요." 이것은 국내의 어느 우수한 종교계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어느 교수가 최근 필자에게 한 말을 요약한 것이다. 그는 국내외의 소위 일류대학교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국내 인문학계에서 탄탄한 학문적 입지를 쌓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학자다.

그리고, 이번 학기 필자의 '불교의 이해'란 강의를 듣는 어느 학생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나는 요즘 매주 목요일마다 특별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조계사에 간다. 그곳에 가면 불교계의 가시성같은 큰 스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교회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판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공자님 이든 인류사의 성인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가 남이가" 식의 내 편, 네 편을 가른 적이 없다. 오히려 그 분들은 모두 자비와 사랑과 포용과 진리의 상대성을 강조하셨다. 더욱이 부처님은 인간의 가치 판단 기준을 바른 인식을 통한 행위에 두지 않았던가? 학자에게는 학식과 도덕성이, 불교인에게는 지혜와 자비가 첫째 덕목일 것이다. 앞에서 든 것과 같은 예들은 어디 종교간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였는 것일까? 그리고, 열반이 어디 멀리 있었는 것일까? 열반의 첫째 조건은 나와 남에 대한 바른 인식일 것이다.

김중명(서강대 계약교수·본지 논설위원)

초파일 사면 '불가능' 개정안 논의조차 못해

20일 조계종 종헌특위 열렸지만...

다시 여론 수렴하기로 9-10월쯤 판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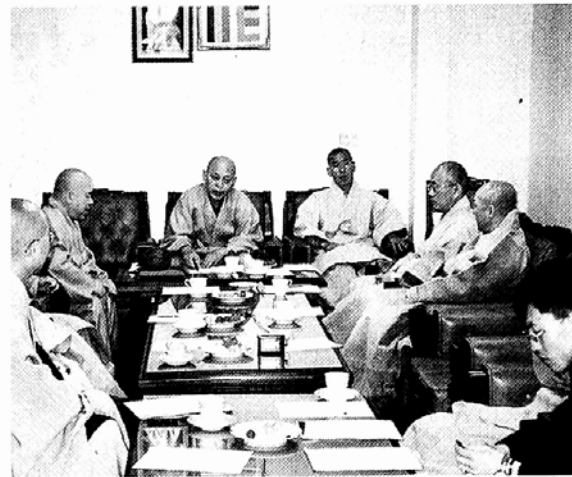
조계종 종헌·종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후) 회의가 20일 열렸지만, 사면을 실시하기 위해 총무원장 정대승이 중앙종회에 제출한 종헌 개정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3월 중순 열린 임시총회에서 종헌·종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한달여만에 열린 회의였다. 물론 첫 회의여서 이후 회의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일의 순서이긴 하지만, 총무원장이 종단화합의 큰 의지를 가지고 제출한 종헌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정도 잡히지 않은 다음 회의로 넘기고 1시간여만에 회의를 마쳤다.

이로써 조계종의 초파일 전 사면 실시는 불가능해졌다. 총무원장과 종회위원을 상대로 한 정화회의의 소송 진행, 이에 따라 정

성된 종회위원들의 사면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초파일 전은 물론 이후의 사면 가능성을 낮게 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특위는 이날 현승스님(종회위원)과 지원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을 간사로 선임하고, 종헌 개정과 관련한 중도들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사면 문제를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거치기로 했으므로, 이에 필요한 시간도 부처님오신날 이후부터 2-3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종헌을 개정하기 위해 종회를 열어야 하므로 빨라야 올 9-10월경에나 사면 가능성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대승이 지난 2월 종정 스님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사면 실시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교구분사와 종회위원들이 한발



조계종 종헌특위는 20일 회의를 열고 종헌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꼭씩 물러나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교구분사와 종회위원들의 양보없는 사면 실시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둔 얘기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실시해도 "사면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얼마나 높을 것인지도 미지수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특위원은 종헌 개정과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오리무종일 뿐"이라며 사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을 주지 않음에 대해 "종회위원들의 심정을 전했다. 정화회의에서 여전히 총무원장과 종회위원들을 상대로 직무정지와 자격상실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면에 적극적으로 답을 주지 않는 원인으로 꼽힌다."

다. 특위원장은 정후스님의 사퇴 발언도 사면 가능성이 적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후스님은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내 능력과 지혜로는 (종헌 개정안) 단일안을 만들기 어렵다고 자각해 위원장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또 "특위에서 합의 해놓고 본회의에서 반대 발언을 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다. 이런 종단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능력과 지혜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종헌 개정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발언으로 들린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김포학사 올내 이전 가능한가

건축비 60억 확보 '관건'

20일 구성된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대책위원회(위원장 영담)가 올내에 김포학사로 이전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건축비 미지급금 및 기물구입비 마련 △이전 후 학교운영 방안 △개운학사 활용 등 현안 해결에 나섰다.

가장 시급한 것은 올내 지급해야 하는 건축비 100억원(전체 건축비 미지급금은 244억원)과 기물구입비 40여억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책위는 건축비 가운데 불필요하게 계산된 80억원을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총무원에서 8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 부족분 20여억원과 기물구입비 40억원 등 60억원의 확보가 시급하다. 동문회와 불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대책위는 건축비 과다 계산 및 부실시공의 원인이 법인사무처와 학교당국의 능력 부재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법인과 학교의 간여를 일체 배제한 채 앞으로의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책위는 이전 후 학교운영과 관련, 문중의 인맥심기식 의 인사가 문제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교원·직원 임용시 공정함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총무원과 교원은 25명 정도의 교직원만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교측은 교육부 기준을 이유로 들어 증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후천적 교직원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동문회도 동문지분이라며 법인사무처장과 기획실장, 기획국장을 요구하고 있다.

안양동 개운학사는 승가학원 소유로 동문회에서 운영 하되, 교직원과 포교원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한 상태다.

대책위는 앞으로 중의 김포학사대책특위의 합동조사보고서와 총무원·교육원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교법인 관리대책 마련 △감독 및 업무소홀 당사자 의법조치 △중앙승가대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가야총림·봉암사 결사 왜색불교 극복

해방 후의 한국선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1895년 승려의 도승출입 금지 해제는 참담한 신분으로 살아가던 조선의 승려들에게 일종의 서광과도 같은 빛이었지만, 그 역사적 진행과정에서 주체적이고 자주적이지 못한 탓으로 한국 불교는 일본불교의 영향권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모습이 시간이 흐를수록 농도를 더해가는 대저, 육식 등 왜색불교의 색채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국에 산재된 선승들을 결집하기 위한 중앙기관의 필요성과 함께 한국 전통선의 진흥과 왜색화되어 가는 불교의 폐단을 막으려는 의식이 싹텄다. 그러한 움직임은 1911년에 일어났던 만해스님을 중심으로 한 임제종 운동과 1919년 3.1운

동을 거치면서 선행한 운동으로 말아하게 된다. 1922년 한국동에 선학원이 창설되는데, 그 창설과 운영의 주역들은 당대의 내로라하는 선승들이었다. 이 시기 또 하나의 중요한 움직임이 1925년 용성스님의 주도하에 도봉산 망월사에서 열린 만일선회결사(萬日禪會結社)이다. 일본불교의 영향으로 한국불교의 계율이 파괴되고 선이 몰락하는 사실을 우려해 결사를 맺게 된 것이었다. 그 목적은 활구참선으로 경성 선불교회를 중심으로 정하고 100여 명의 대중에 운집하였는데, 선원은 물론 강원을 열고 霜月스님에게서 大戒를 받고 50여일 동안 수계산행을 거행했으며, 참선납자들은 특별선원과 보통선

당시 조실은 학명스님이었으며 입승은 雲峰스님 그리고 古庵·耕雲·古松·普門·雪峰·東山스님 등 20여 명의 납자가 내호법명으로 참여했다. 이 참선결사는 1928년 4월 도봉산이 산림의 보완으로 편입되면서 통도사 내원암으로 이전하여 진행되었다. 이렇게 왜색불교에 맞서오던 한국의 선은 해방 이후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야총림의 개설과 봉암사 결사이다.

1946년 11월, 중앙종회에서는 광복 후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그리고 조선 불교 부흥을 위해 선각들을 중심으로 가야총림 시대를 연다. 가야총림은 우리나라 최초의 총림으로서 曉峰스님을 방장으로 모시고 仁谷·潭浩·九山·法弘·石虎스님 등 100여 명의 대중에 운집하였는데, 선원은 물론 강원을 열고 霜月스님에게서 大戒를 받고 50여일 동안 수계산행을 거행했으며, 참선납자들은 특별선원과 보통선



고명석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연구과장

원으로 나누어서 정진했다. 비단의 가사장삼을 폐하고 보좌장삼 100벌과 괴색의 포연으로 가사불사를 해서 총림 대중들의 의제를 통일한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장창규 정신을 되살려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을 철저히 지켰다. 가사·장삼·발우도 새로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때 제정된 가사·발우·장삼 등은 오늘날 조계종 의제의 바탕이 된다. 신도들이 스님들에게 3배의 예를 갖춘 것도 이때부터요, 3000배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봉암사 결사는 신도들이 스님에게 배푸는 개인적인 공양도 모두 없애고 오로지 대중공양만 받자고 하여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똑같이 평등하게 살자는 정신을 실천했다.

한편 1947년 12월 만암스님을 중심으로 호남 고불총림을 개원한 사실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이것은 호남 일대의 20여 사찰·암자·포교당을 규합하여 백암사에 건립한 종합적인 수도도량으로 이곳에서 대중들은 엄격한 계율과 법식을 지키며 불교의 중흥을 위해 수선 정진했다.

안타깝게도 해인총림과 봉암사 결사 그리고 여타의 선원도 6.25의 발발과 공비의 잦은 출몰로 와해되면서 문을 닫게 되었다. 다행히도 6.25동안 시절 부산 범어사 금어선원과 선암사 소림선원, 충무 용화사 동국제일선원 등에서 東山·呑谷·曉峰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선승들이 참선 정진하면서 끊어질 듯한 선맥을 이어나갔다.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불기 2544(200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

주요 행사

Table with 6 columns: 행사명, 일시, 장소, 주요내용, 집행처, 비고. Lists various Buddhist activities for Buddha's Birthday.

자비의 손길

Table with 6 columns: 행사명, 일시, 장소, 집행처, 비고. Lists various Buddhist activities for Buddha's Birthday.

경축기념행사

Table with 6 columns: 행사명, 일시, 장소, 집행처, 비고. Lists various Buddhist activities for Buddha's Birthday.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 ☎(02)725-6641